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최종원(서울신대)

1. 불같은 사랑을 하며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기쁜 것 같으나 슬프고, 잔잔한 바람 같으나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강렬한 태풍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¹⁾

1) 아가서 8장 6-8절. 이 논문에서는 개역개정판을 주된 한글성경번역본으로 하겠다.

‘사랑’은 ‘여호와와 불’과 같다. 그래서인가 ‘사랑’은 ‘질투’와 나란히 등장한다.²⁾ 저 유명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라.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곧 이어 야웨는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사랑’은 ‘질투’와 함께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 인격화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잠언에서의 ‘지혜의 인격화’(잠 1-9장)와 비교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그 ‘사랑’은 ‘야웨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용어다. 고대 오리엔트(der alte Orient) 문화권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는 ‘질투’, ‘시기’, ‘폭력’ 등 다양한 상대적 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³⁾ 구약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야곱 이야기(창 28장 이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는 ‘사랑’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이와 같은 사랑은 지극히 감성적으로 인간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정서적 삶을 글로 표현한 구약의 사랑 이야기는 때론 비극적이고 때론 희망적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삶의 태도가 규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인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감성적인 모습과 유사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흔적을 신명기의 신학적 사고를 통하여 접할 수 있다.

2) J. W. von Goethe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1774)과 W. Shakespeare의 『로미오와 줄리엣』(원작은 런던에서 1599년 출판)을 보라. 강렬한 사랑이 두 연인의 삶을 삼키고 있지 않은가! 사랑은 비극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하다.

3)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단어 ‘사랑하다’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J. Bergman, A. Haldar and G. Wallis, Art: 207 in: ThWAT I, 106-128.

모란(W. Moran)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약적 개념 안에서 해석했다.⁴⁾ 모란의 해석을 통하여 그 동안 신명기의 장르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그는 사랑의 용어가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것이다. 오히려 조약의 개념으로 주전 2000년에서 1000년경에 기록된 고대 오리엔트 문화권의 조약 문서에서 사랑의 개념을 연구했다.⁵⁾ 이 사랑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신명기 6장 5절이다. 여기서 사랑의 명령은 조약의 용어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고대 오리엔트 문화권의 왕들은 실제로 국가조약문서에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정치적인 충성이라는 카테고리로 설명이 가능하다.⁶⁾ 신명기는 이 정치적인 충성심을 ‘아하브’(אהב) 동사로 표현했고, 그 개념 용어는 오직 야웨를 사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계약 개념으로서 사랑은 호세아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와 호세아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 본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적 전통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최근에 한국구약학분야에서도 이 계약적 주제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신아시리아의 조약 본문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오토(E. Otto)와 슈타이만스(H. U. Steymans)의 주장이 이어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일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⁸⁾ 아시리아의

4) W. L. Moran, "The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of the love of God in deuteronomy", CBQ 25 (1963).

5) W. L. Moran, *윳글* (1963), 82.

6) 참고, N. Lohfink, "Das Hauptgebot. Eine Untersuchung literarischer Einleitungstragen zu Dtn 5-11", *AnBib* 20 (Rome, 1963), 78; S. D. McBride, "The Yoke of the Kingdom. An Exposition of Deuteronomy 6:4-5", *Interp.* 27 (1973), 273-306; Y. Suzuki, "Deut. 6:4-5. Perspectives as a Statement of Nationalism and of Identity of Confession", *AJBI* 9 (1983), 65-87; E. Otto und R. Achenbach (Hg.), *Das Deuteronomium zwischen Pentateuch und Deuteronomistischem Geschichtswer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53.

7)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H. Spieckermann, "Mit der Liebe im Wort. Ein Beitrag zur Theologie des Deuteronomium", in: idem, *Gottes Liebe zu Israel. Studien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FAT 33 (Tübingen: Mohr Siebeck, 2001), 157-172.

8) U. R. Ters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문학적 전통과 비교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아시리아 문서에 나타난 배타적 충성심이 야훼 하나님의 신앙 전통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신아시리아의 충성심은 신에 대한 왕의 충성심이요 또한 왕에 대한 백성의 충성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왕은 ‘형제들 가운데’ 선출되는 평등 사상(Egalität)에 기인하고 있다(신 17:14-20). 그 외에도 문학적 전통 아래 쓰여진 개념 용어는 신아시리아적이기보다 오히려 북서셈어에 가깝다.⁹⁾

본 연구는 전통사(Traditionsgeschichte)비평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신명기적 사고의 틀이 고대 오리엔트 문화권의 ‘조약’ 또는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신명기 6장 5절의 배경이 북서셈어적 영향 아래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먼저 논문의 흐름을 위하여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며, 다음으로 구약에서 ‘사랑하다’의 객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들이 고대 오리엔트 문화권의 문서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2006), 51–55; J. Hoftijzer and K. Jongeling, Art.: r m1, in: *Dictionary of the North–West Semitic Inscriptions* (HdO I, 21; Leiden, u.a.: E.J.Brill, 1995), 1068–1069. 국내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윤영준, “쉐마(신 6:4–5)와 애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과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 제29집 (2008년 9월), 31–46; 이은우, “쉐마(신 6:4–9)의 수용사(Reception History) 연구,” 『구약논단』 제40집 (2011년 6월), 54–83.

9) U. R. tersw rden, “Die Liebe zu Gott im Deuteronomium”, in: M. Witte u.a. (Hg.),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Berlin, 2006), 229–238.

2. 언어적 접근

1) 사용 빈도수

구약에서 ‘사랑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하브’(אהב)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처럼, 주격,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통하여 본문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¹⁰⁾ 동사적 용법-Qal 176회이며 그 중 능동 분사로 36회, 수동 분사로 1회, 피엘 분사형으로 16회 사용되고 있다. 명사형으로 50회 사용되고 있다. 본문 안에서 이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박’(בָּבֶר ‘달라붙다’), ‘하마드’(הִמַּד ‘열망하다’), ‘하샤크’(חָשַׁק ‘사랑하다’) 그리고 ‘하파쓰’(חָפַץ ‘원하다’) 등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 ‘아하브’(אהב) 동사가 구약 성서의 아람어 본문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탈굼(Targum)이나 랍비 문학에서 동사와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히브리어 동사 ‘아하브’(אהב)가 셈어적 영역의 본문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¹¹⁾ 특별히 우리가 아람어 문화권에서 살펴 볼 때, 오히려 이 ‘아하브’ 동사는 ‘라함’(רחם)으로 대체되어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¹²⁾ 아람어 ‘라함’ 동사는 다니엘 2장 18절에서 사용되고 있고, 고대 아카드 본문과 우가리트, 그리고 고대 아람어 본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¹³⁾

칠십인역에서 이 동사는 아가파오(ἀγαπάω)로 사용되며, 명사형으로

10) 참고, A. Moenikes, “Liebe/Liebesgebot”, in: *www.wiblex.de* (2012), 1–20. 다음과 비교하라. G. Wallis, “אהב”, in: *ThWAT* (1973), 108–128.

11) J. Hoffjizer and K. Jongeling, *윗글* (1995), 1068–1069.

12) J. Hoffjizer and K. Jongeling, *윗글* (1995), 1068.

13) Ch. Dahmen, Art: רחם, in: *ThWAT VII* (1993), 461ff.

아가페(ἀγάπη)가 사용된다. 신약에서 이 동사는 143회 등장하고, 명사로 115회, 동사적 형용사(분사형)로 61회 등장하고 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 시대의 비유대 문헌과 비기독교 문헌에서 동사 ‘아가파오’는 빈번히 등장하고 있지만, 동사의 목적격으로 신에 대한 사용은 찾아볼 수 없다.¹⁴⁾

2) 다양한 사랑의 대상들

‘아하브’의 객체들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a.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 - 출 20:6(‘나를’); 신 6:5; 7:8, 9, 13; 10:10, 12, 15, 18, 19; 11:1, 13, 22; 13:3; 19:9; 30:6, 16, 20; 수 22:5; 23:11; 삿 5:11; 왕상 3:3; 느 1:5; 시 5:11; 31:23; 97:10; 잠 4:6; 8:17 등등.

b.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사용 - 창 22:2; 창 37:4; 호 11:1 등등.

c. 이성간에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 - 창 24-36장 (이삭과 야곱 이야기); 출 21:5; 신 21:15; 삿 16:4, 15; 룻 4:15; 삼상 16장; 18장; 20장; 삼하 1장; 에 2:17; 5:2; 아가서 다수; 사 5:1; 렘 2:2; 호세아서 다수 등등.

d. 이웃에 대한 사랑 - 출 19:18; 신 10:18; 욥 19:19 등등.

e. 사물에 대한 사랑 - 신 15:16; 전 5:10 등등.

f. 개념(공의, 의 등) 등 사상에 대한 사랑 - 시 33:5; 52:3; 119:113 그 외 다수; 사 1:23; 암 5:15; 미 6:8; 슥 8:19 등등.

위의 예들 가운데 다양한 객체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

14) Ch. Dahmen, *윗클* (1993), 461f.

(1) 중재자를 통한 하향식 사랑의 패턴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고대 동양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의 패턴은 신이 백성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 중재자를 이른바 왕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왕은 백성들이 신에게 나아가는 두려움을 대신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하향식 사랑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고, 이런 신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왕은 백성이나 자신의 봉사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위 계층인 백성이나 봉사들은 신뢰, 순종, 감사 그리고 충성 등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개념이 신아시리아의 조약 문서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모란(1963), 쉬타이만스(2003), 뤼터스워드(U. Rüterswörden, 2006)에서 그 중요한 논쟁들을 살펴 볼 수 있다.¹⁵⁾

(2) 중재자 없는 신의 직접적인 사랑의 패턴

이 카테고리에서 ‘왕’의 역할은 생략되어 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백성과 대면하며 말씀하시고 백성은 응답한다.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신명기 17장 14-20절에 나타난 왕의 역할이 백성의 ‘형제’로서 나타나는 것은 신명기의 독특한 신학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반아시리아적 개념을 지향하고 있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⁶⁾

(3)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호세아서와 신명기서의 독특한 주제로 알려진다.¹⁷⁾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 보다 더 오래된 본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본문은 다음과 같다. 신명

15) W. L. Moran, *윳글* (1963); U. R. tersw rden 윳글 (2006), 229-238; H. U. Steymans, “Die neuassyrische Vertragsrhetorik der Vassal Treaties of Esarhaddon und das Deuteronomium”, in: G. Braulik (Hg.), *Das Deuteronomium* (BS 23; Frankfurt a. M. u.a., 2003), 89-152.

16) A. Moenikes, *윳글* (1997), 3.

17) 참고, A. Moenikes, “The Rejection of Cult and Politics by Hosea”, *Henoch* 19 (1997), 3-15.

기 4장 37절; 7장 7-8절; 10장 15, 18절; 호세아 11장 1-4절; 예레미야 3장 19-20절; 에스겔 16장; 이사야 57장 8-9절.

(4)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신명기 사가적 관점에서 볼 때, 신명기 6장 6-9절의 본문은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와 여호수아 22장 5절 이하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본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신명기 6장; 11장; 13장 4절; 19장 9절; 30장 6, 16, 20절; 여호수아 22장 5절; 23장 11절; 열왕기상 3장 3절.

(5) 민족의 부분으로 개인들

대표적으로 신명기 13장 7-12절의 본문을 들 수 있다. 오토(E. Otto)에 의하면, 이 본문은 아시리아의 '에살핫돈의 왕위계승 본문'(VTE)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다.¹⁸⁾ 그러나 바이올라(T. Veijola)는 포로기 이후 본문으로 신명기사가적인 계약 본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또 다른 관점으로 뤼터스뵈르덴(U. Rüterswörden)은 신명기 13장이 복서셈어적 전통 아래 있다고 주장한다.²⁰⁾

(6) 야훼의 이름 등등을 사랑하다

이 주제에 대한 본문으로 시편 18편 2절 이하; 5편 12절; 69편 37절; 119편 47-48, 97, 113, 132, 165절.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의 주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계약과 관련된 본문이다. 이러한 본문들 가운데 사랑과 계약의 주제는 신명기적 계약

18) E. Otto, *Gottes Recht als Menschenrecht. Rechts- und literaturhistoris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Wiesbaden: Harrassowitz, 2002).

19) T. Veijola, *Das 5. Buch Mose (Deuteronomium), Kap. 1,1-16,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20) U. R. terswörden, "Dtn 13 in der neueren Deuteronomiumforschung", in: (Hg.) A. Lemaire, *Congress Volume Basel 2001 (VT.S 92; Leiden/Boston, 2002)*, 185-203.

사고의 틀 안에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우리는 구약 이외의 고대 동양의 흔적들을 추적 및 비교해 봄으로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3. 고대 근동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 이집트의 시누헤 문서

Sinuhe B 66: 대부분의 왕들이 자랑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시누헤 역시 말하기를, “그가 사랑받는 주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주이시다. 그의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있다.”²¹⁾

2) 우가릿 본문

CTA 4 IV-V 38-39: “진실로, 왕인 엘의 일원이 너를 임신케 할 것이며, 짐승의 사랑이 너를 자극할 것이다”²²⁾

여기서 사용되는 ‘사랑하다’라는 어근은 가나안의 신화적 묘사 속에서 성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구약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창 24:67), 야곱과 라헬(창 29:18, 20, 30), 삼손과 들릴라(삿 16장)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신명기의 계약적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3) 엘 아마르나 편지들 (El-Amarna letters)

EA 53:40-44에서 파라오가 봉신들을 사랑하듯이, 봉신들이 이집트 왕을 사랑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다: “나의 주여, 마치 내가 왕을 나의 주

21) J. Bergman u.a., 윗글 (1973), 107.

22) J. Bergman u.a., 윗글 (1973), 115.

로 사랑하듯이, 누하세의 왕, 니이의 왕도 그렇게...-이 모든 왕들이 나의 주의 종들입니다.”

이어 EA 114:68의 립-아다(Rib-Adda)는 유사한 본문에서 충성과 봉사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는가?” 이는 분명히 봉신들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 파라오에 대한 봉신국가의 왕들이 ‘사랑하다’라는 용어로 섬겨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문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모란은 문화적 접촉이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해 냈다. 이 사고는 신명기 사고 안에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아시리아의 봉신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용어에 의하여 충성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²³⁾

4) 에살합돈의 왕위계승조약(VTE)²⁴⁾

본문 24에서 계약적 사랑에 대한 흔적을 만날 수 있다: “(266) 만일 너희들이 계승가문의 왕자요 앗수르의 왕인 에살합돈의 아들, 너희들의 주인 앗수르바니팔을 너희 생명처럼 사랑하지(아카드어 *rāmu*) 않으면...”²⁵⁾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rāmu*)’은 봉신 관계로 맺어진 충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정치적인 조약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과의 관련성으로 볼 때 매우 유혹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즉 일반적으로 이 본문이 신명기 계약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사랑하다’라는 동사와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단어의 조합에 있다. 신명기 6장 5절처럼 조약 본문에서 사랑과 함께 ‘생명’이

23) W. Moran, *유허* (1963), 229-230.

24) D. J. Wiseman,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1958). 이 책의 제목을 축약하여 “VTE”라고 쓰고 있다.

25) R. Borger, *Texte aus dem Umwelt des Alten Testaments I* (G. tersloh, 1982), 166; H. U. Stelmans, *유허* (2003), 120-122.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큰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본문이 조약 문서의 서론이 아닌 중간 부분이며 또한 결의론적 문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슈타이만스는 사랑의 명령에 주목하면서 VTE 본문을 사무엘상 18장 1, 3절; 20장 17절과 비교한다. 이 본문들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본문 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전치사 키(כִּי)와 네פע쉬(נִפְעֵשׂוּ)가 부사구(크나프쇼, כִּנְאֻפֵּשׂוּ)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⁷⁾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이 VTE처럼 조약이나 계약과 연결된 사랑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고대 동양에서 매우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다. 베르그만(J. Bergman)이 밝히고 있듯이, 이집트의 시누헤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왕과 피지배층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계약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²⁸⁾ 즉 아시리아의 특별한 계약적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북서셈어 아래에 있는 조약 개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5) S^efire 조약 비문

이 비문은 아람어로 쓰여졌고, KTK 왕국의 왕 바르가야와 아르파트 왕국의 왕 마티엘과의 국가적 봉신 조약 문서다.²⁹⁾ 이 문서 안에 조약적 개념으로서 ‘사랑’의 주제가 소개되고 있다. 다만 ‘아하브’(אָהַב) 동사 대신에 ‘르함’(רָחַם) 동사로 대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본문들

26) 이 문장에 대하여 윤영준과 이은우는 단순한 명령형의 문장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문장은 아카드어 “만일”-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H. U. Steymans에 의하여 명확히 할 수 있다.

27) 참고. R. Frankena,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Dating of Deuteronomy," *OTS* 14 (1965), 122-154, 144.

28) A. Bergman, u.a., *유타* (1973), 107.

29) J.-W. Choi,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Eine literar- und kompositionskritische Studie zu den Vorstellungen von Fluch und Strafe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KAANT 11 (Kamen: hartmut spenner, 2011), 20-74; J. A. Fitzmyer,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fire*, *Biblica et orientalia* 19/A (Rome, 21995); H. Donner and W. Röllig,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II*, Wiesbaden, 1966-1969.

을 살펴보자.

Sefire III (KAI 224) 7-9: “(7) 그리고 나의 영역에 있는 모든 왕들 또는 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אָהַב) 각각의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라!”

이 본문에서 ‘아하브’(אָהַב) 대신에 ‘르함’(רָחַם)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북서셈어 영역에서 동사 ‘아하브’(אָהַב)는 동사 ‘르함’(רָחַם)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물론 이 어근의 사용 역시 조약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는 분명히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 동맹자로 소개된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의 동사 ‘아하브’(אָהַב)에 연결되어 있는 ‘마음’(לֵב)과 뜻(מַצַּח, 네페쉬)과 ‘힘’(קֹחַ, 메오드)과 같은 부사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분명 조약 전통(Vertragstradition)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매우 특징적인 계약적 표현이다. 뢰터스베어덴은 “내적인 태도”(innere Haltung)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die Lieb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 사랑이 신명기 안에서 부분적 관점을 벗겨 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사랑과 함께 사용되는 ‘마음과 뜻과 힘’이 바로 내적인 독백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⁰⁾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다음의 문장에서 만날 수 있다.

Sefire III (KAI 224) 14-17: “(14) 그리고 만일 나를 죽이겠다는 그것이 너의 마음(לֵב)에 임하면 그리고 네가 그 계획을 계획하면, 그리고 (만일) 그것이 너의 아들의 마음(לֵב)에 온다거나 그가 나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진다면, 그리고 (만일) 나의 손자를 죽이겠다는 마음(לֵב)을 품거나 그와 같

30) U. Rüterswörden *윗글* (2006), 235.

은 계획을 가진다면, 또는 나의 자손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너의 자손의 마음(לב)에 품거나 그것을 계획한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르파트의 왕들이 나를 죽이려는 마음(לב)을 품거나 그것을 계획한다면,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될 것이며, 너는 이 비문에 있는 모든 조약의 신들에 대항하여 조약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학적 특징은 정치적 충성과 연결된 ‘마음’(לב)의 내적 상태에 있다.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물음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배교와 충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마음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표현 ‘키 토마르 빌바브카’(כִּי תוֹמַר בִּלְבָבְךָ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이 신명기 7장 17절; 8장 17절; 9장 4절에서처럼 마음의 잘못된 길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명기는 ‘기억하라’(זָכַר)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추가하여 명령을 지킬(שָׁמַר) 것을 요구하고 있다.

S^cfire II (KAI 223B) 4-6: “(4) 그리고 (5) 만일 네가 너의 생명(vbn)으로 말하기를 그리고 너의 마음(bbi)에 생각하기를, 나는 피계약자요, 나는 바르가야에게 순종할 것이다, (6)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에게도, 또한 나는 당신을 향하여 그 손을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스피르 비문에서는 동사 ‘르함’(רָחַם)과 함께 생명(חַי) 네페쉬)과 마음(לב) 레바브)이 조약의 내적인 장치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³¹⁾ 생명으로 소개되는 나바쉬(נָבֵשׁ)는 히브리어의 네페쉬(נֶפֶשׁ)

31) 예외적으로 라함(רָחַם)동사가 법적 조서로서 억울하게 저당 잡힌 자신의 옷을 돌려달라는 메짜드 하샤브야 후 문서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 편지에서 지휘관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요구한다. 참고 J. Renz & W. Röllig, *Handbuch der althebräischen Epigraphik Band 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와 동의어다. 이러한 내적 독백의 표현은 조약문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연결된다. 신명기 6장 4절의 ‘들으라 이스라엘아’(לִשְׁמָע יִשְׂרָאֵל) 웨마 이스라엘)라는 표현이 ‘사랑하라’는 5절 앞에 놓인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다’와 ‘듣다’는 분명 신명기 안에서 상호간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만날 수 있다.

Sefire I B (KAI 222B) 21-22: “(21) 그리고 만일 마티엘이 듣지(שמע) 않으면, 그리고 만일 그의 아들들이 듣지(שמע) 않으면, 그리고 만일 그의 민족이 듣지(שמע) 않으면, 그리고 (22) 만일 역시 아르파트에서 통치하는 모든 왕들이 듣지(שמע) 않으면...”

또한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에서 만나게 되는 매우 특별한 문학적 양식인 2인칭 단수와 복수의 사용을 여기 스피르 비문에서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칭의 변화가 단순히 본문의 층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지만, 스피르 비문을 통해서 새롭게 분석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Sefire I B (KAI 222B) 23절 이하: “(23) 만일 너희들(הוּ)이 이 조약들을 듣고 지키는다면, 그래서 네가(הוּ)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조약의 체결자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 대항하여 나의 손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도 너의 아들을 대항하여 손을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손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왕들 가운데 하나 또는 나를 대항하여 나의 적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려고 한다면, 너는 그 어떤 왕에게 말해야 한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인칭수의 변화는 신명기에서 매우 뚜렷이 등장하고 있다. 특

1995), 315-329.

히 신명기 6장에서도 이 부분은 예외적이지 않다.³²⁾ 인칭변화 중에서 주목할 것은 2인칭 단수로서 집합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아직까지 고대 오리엔트 문화권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신명기만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스피르 비문은 내적 심리적 상태와 외적인 제어상태를 잘 조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외적인 제어 상태는 축복과 저주라는 모습으로 심리적 태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제어장치는 분명히 아카드 지역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과는 다르다.³³⁾ 오히려 전형적인 북서셈어적인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바르라킵 비문(Barrakib-Inschrift)

바르라킵은 삼알의 왕인 파남무바(Panammuwa) 2세의 아들로써 주전 733-727년 동안 삼알을 통치했다. 당시 이 아람의 도시국가인 아시리아의 왕 티글랏빌레셋 3세(주전 745-727)의 봉신으로 정치적인 충성을 맹세 해야만 했다.³⁴⁾

S235-S238: “나는 나의 주와 나의 주의 집에 속한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충성(קָרַבַּ)을 다한다. (S236) 그리고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에게 더욱 더 충성(קָרַבַּ)적이다. (S237) 그리고 나의 아들들도 다른 모든 왕들의 아들들보다 더 충성(קָרַבַּ)적이다. (S238) 그리고 그들의 생각(חֲבוּבִי)이 나의 주에게로 향하여 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 ‘짜딕’(קָרַבַּ)은 호프트저(J. Hoftijzer)와 종엘링(K. Jongeling)에 의하면 ‘올바른, 정의로운 행위’로 번역되

32) 참고, E. Nielsen, *Deuteronomium*, HAT I/6 (Tübingen: Mohr, 1995), 84-94.

33) 참고, J.-W. Choi, *윗글* (2011), 20-74.

34) H. Donner and W. Röllig, *KAI // Nr.217* (1964), 234-235.

고 있다.³⁵⁾ 이것은 외부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용어는 왕에 대한 신하의 올바른 태도로서 군주에 대한 신하의 자세를 규정하는 개념 용어(Konnotation)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또는 영)(עָבַר)은 내적인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외적인 장치로서 의로운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 준다. 이 용어는 삼알의 왕인 파남무바 1세(Panammuwa I.)의 하닷 비문에서 나타나고 있다.³⁶⁾ 이러한 개념이 북서셈어 영역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7) 킬라무바 비문(Kilamuwa-Inschrift)

기원전 850년경의 페니키아 왕인 킬라무바의 비문으로 진질리(Zincirli)에서 발굴되었다.³⁷⁾ 이 본문에서 외적인 지각에서 내적인 지각으로의 움직임은 만나게 된다.

KAI II, Nr 24: “(13열)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생각(עָבַר)과 유사하게 그 생각(עָבַר)을 표명했다”

4. 아웨를 사랑하라

위에서 우리는 ‘아하브’(אָהַב)가 아웨를 목적어로 가지는 본문을 살펴 보았다. 그 본문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자.

1) 신명기 6장 4-5절

35) J. Hoftijzer and K. Jongeling, *윗글* (1995), 962.

36) H. Donner and W. Röllig, *윗글* (1964), 214-223. 그 외에 다음에서 나타나고 있다: KAI II, Nr. 24,13; 215,18; 217,7; 222A 37; 222B 39f., 42; 224,5f., 6.

37) H. Donner and W. Röllig, *윗글* Nr.24, 30-31.

שְׁמֵי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
וְאֶהְבֶּתְ אֶת יְהוָה אֱלֹהֶיךָ בְּכָל-לְבָבְךָ וּבְכָל-נַפְשְׁךָ
וּבְכָל-מְאֹדְךָ:

4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웨는 우리 하나님이다; 야웨는 한 분이시다.

5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야웨를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뜻과
너의 모든 힘으로

명령형으로서 웨마는 모세의 설교를 떠올리게 하지만, 야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야웨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웨마의 문장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오직 신명기에서만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문장으로 야웨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올라(T. Veijola)는 4가지의 가능성 있는 번역을 내놓고 있다³⁸⁾: a. Jahwe, unser Gott, Jahwe is einzig; b. Jahwe, unser Gott, ist ein (einzig) Jahwe; c. Jahwe is unser Gott, Jahwe ist einer; d. Jahwe ist unser Gott, Jahwe ist einzig.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문법적 표현에서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비록 쿤틸렛 아그루(Kuntillet 'Agrud)에서 '사마리아의 야웨'와 '테만의 야웨'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에 유일한 야웨(monojehwistisch)의 모습이 발견되지만, 신명기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의 야웨(einen Jahwe)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네 번째 번역을 선호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에하드'(אֶחָד)는 과연 '유일함'으로 번역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에 각 지역 성소에서 섬기는 지역적인 야웨 신앙을 고려한다면 세 번째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5절의 문장이 바브연속법(Waw

38) T. Veijola, *윳글* (2000), 82f.; 참고, N. Macdonald, *Deuteronomy and the Meaning of 'Monotheism'* FAT 2. Reihe 1 (Tübingen: Mohr Siebeck, 2003), 64.

Consecutive)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5절의 ‘브아하브타’(בְּרַחֵם) 그리고 너는 사랑해야 한다)는 4절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들으라’(שְׂמַע)에 의하여 연속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진다.³⁹⁾ 그러므로 ‘브아하브타’는 ‘그리고 사랑하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소개된 스피르 본문에서 ‘들다’와 ‘사랑하다’의 밀접한 계약적 관계의 모습을 보았다. 분명 우리는 이 두 동사적 의미가 계약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본문이 매우 주목받는 것은 아하브 동사의 사용이 소위 신명기 율법으로 알려진 신명기 12-26장에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오히려 테두리 부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5:10; 7:9; 10:12; 11:1, 13, 22; 30:6, 16, 20). 다만 예외적으로 신명기 13장 4절(MT)과 19장 9절(MT)에서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13장 부분은 분명 원신명기에 속하는 가장 오래된 본문이지만, 19장은 포로기 이후의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⁴⁰⁾ 그 13장 본문에서 ‘아하브’는 강조능동(Pi.) 분사형 남성 복수로서 야웨를 목적으로 취한다. 문장의 유형이 신명기 6장 5절의 본문과 많이 다르다. 거기서 2인칭 남성 복수 인칭접미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편집이나 2차적 추가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13장의 본문 배경과 6장의 본문 배경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신명기 자체에서도 ‘아하브’의 사용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객체가 야웨임을 감지하면서, 구약에서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문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¹⁾ a. 시편 31:24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b. 잠언 4:6 “그것(지혜)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녀

39) 우가릿 본문과의 비교 연구에 의한 유일신관에 대한 논쟁을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H. Seebass, "Gott der einzige. Bemerkungen zur Religionsgeschichte un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n: F. Sedlmeier(Hg.), Gottes Wege suchend.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r Bibel und ihrer Botschaft (Wurzberg: Echter Verlag GmbH, 2003), 31-46.

40) U. R. terswörden, *윗글* (2006), 82-88, 125-126.

41) E. Jenni, Art: אָהַב , in: THAT I (1984), 71.

가(지혜) 너를 보호할 것이다”; c. 호세아 3:1 “그녀를 사랑하라”; d. 아모스 5:15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너희는 선을 사랑하라”; e. 스가랴 8:19 “그리고 진리와 평화를 너희들은 사랑하라”.

위의 보기들 중 호세아서에서 쓰이는 명령형 동사 ‘아하브’는 분명 감성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호세아서의 음녀가 된 여인은 이미 아웨를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표현 역시 감성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분명히 신체적 기관들과 정신적 역할 사이에서의 관계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늘날과 다른 점을 보여준다. ‘마음’(לבב 레바브)은 인간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며, 영혼(네페쉬)은 감성과 열망의 자료가 된다. 이 두 가지는 인간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⁴²⁾ 그러므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신명기에서는 ‘마음’(לבב 레바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음과 관련된 내적 독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신명기 7장 17절; 8장 17절; 9장 4절. 여기서 2인칭 남성 단수의 형태로 ‘네가 혹시 심중/마음에 이르기를’(כי תאמר בלבבך) 키 토마르 빌바브카)라고 쓰고 있다. 이 본문들은 모두 내적인 독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마음의 결정이 곧 의로움과 충성심을 대변하는 행동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문장과 유사한 본문을 아람어 국가 조약문인 스피르 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S^cfire II (KAI 223B) 4-5은 다음과 같다.

“만일 네가 너의 생명(נפש)으로 말하기를 그리고 너의 마음(לבב)에 생각하기를...”

42) N. Macdonald, *윗클* (2003), 98.

הן תאמר בנבכך ותעשת בלבבך

신명기서는 ‘말하다’+‘네의 마음에’(בלבבך+אמר)라는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스피르 비문에서 보듯이, אמר+בלבבך은 עשת+בלבבך과 나란히 병행되고 있다. 두 본문 모두 2인칭 남성 단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스피르 본문이 조건절을 이끄는 ‘만일’(הן)으로 시작한다면⁴³⁾, 신명기 7장 17절은 ‘키’(כי)문장으로 시작한다. 문체적으로 구문론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두 본문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문장은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이라는 수식어들과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조합은 앞에서 살펴 본대로 조약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야웨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⁴⁴⁾ 물론 전형적인 후기 신명기사가적 첨가 본문인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이 세 가지 내용(마음과 뜻과 힘)이 나란히 등장한다.⁴⁵⁾ 그러나 그 문장은 ‘슈브’(שוב 돌아오다)’와 연결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 ‘슈브’에서

43) 랍비적 해석에 의하면, 모든 마음으로 야웨를 사랑하는 것은 선과 악의 충돌 속에서도 야웨를 섬기는 것이다. 모든 삶으로 야웨를 사랑하는 것은 야웨를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야웨께 던지는 것을 말한다. 이 설명은 그 유명한 랍비 아키바의 죽음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다. 로마인이 왜 쉘마를 암송하냐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응답한다: “진실로 나는 이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이 순간을 기다리며 나의 모든 삶을 살아왔다. 나는 항상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삶으로 나의 주님을 사랑했다. 지금 나는 나의 모든 삶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안다.” 모든 힘으로 야웨를 사랑하는 것은 전도서 7장 30-31절에 나타나는 재산이나 풍부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N. MacDonal, *윳글* (2003), 99.

44) 예수는 마가복음 12장 28-32절에서 이 본문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34-40절과 누가복음 10장 25-28절은 쉘마 형태가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누가복음의 본문은 계명이 아닌 영생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은 요한복음에 쉘마와 사랑의 계명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명과 사랑의 관계가 14장, 15장 그리고 21장에서 베드로와의 대화 장면에서 매우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라. G. Charles A. Fernando,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love in the Gospel of John: A detailed scientific Research on the Concepts of Law and Love in the Fourth Gospel and ...* 23, European University Studies, Series 23: Theologie (Frankfurt a. M., u.a.: Peter Lang GmbH, 2004).

45) E. Aurelius, “Die fremden Götter im Deuteronomium”, in: M. Oeming und K. Schmid (Hg.), *Der eine Gott und die Götter. Polytheismus und Monotheismus im antiken Israel*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3), 152.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적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 안에는 전적인 아웨의 영원한 언약 모습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다.⁴⁶⁾

결론적으로 신명기 6장 5절의 본문을 복서셈어 영역에 있는 스피르 비문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신명기	스피르 비문	킬라무바 비문
דבר אלהים 6:5	אמר	
לך 6:5	לבב	
נפש 6:5	נפש	נפש
בלבבך+אמר 7:17; 8:17;9:4	בנפשך+אמר בלבבך+עשת	

2)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עבד) 것이다”

46) 이러한 개념이 노아의 영원한 언약과 비교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과 계약과도 비교연구해 볼만 하다. 우리는 여기서 맥도널드의 견해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아웨를 사랑하는 본문들을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분류한다: a. 결혼의 상으로서 사랑(Love as Marital Imagery), b. 자식의 상으로서 사랑(Love as Filial Imagery), c. 정치적인 상으로서 사랑(Love as Political Imagery). 그는 슈브 동사의 사용을 a. 결혼의 상으로서 설명한다. 신명기가 사용하는 '아하브'(사랑하다)의 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6장 4절의 웨마 사고와 연결된다. 그는 '에하드'를 '유일한'으로 해석하면서, 아가서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호세이는 아웨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아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모란의 주장에 그는 너무 지나치다고 반박을 한다. 신명기는 결혼에 대한 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아웨 사랑의 응답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를 다시 찾는 것이다.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모습 속에서 그러한 돌아섬의 모습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필요한 구성 요소나 또는 돌아섬의 결과로서 사랑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습을 그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아의 행동을 '아하브'가 아닌 '슈브'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과 비교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한다. (N. MacDonald, 윗글, 101).

이 본문은 신명기 6장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온 마음과 온 뜻을 가지고 야웨를 섬겨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아하브’(אהב)와 ‘아바드’(עבד) 평행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하브’(אהב) 아닌 ‘아바드’(עבד)가 여기서 ‘마음’(לבב 레바브)와 ‘생각/뜻’(נפש)를 부사구로 가진다. 분명히 조약 용어의 해석으로 보여진다.

3) 신명기 11장 1, 13, 22절

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אהב)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שמר)”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אם) 청종하고(שמע)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אה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עבד)”

22절 “너희가 만일(אם)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שמר) 행하여(עש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אהב)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הלל) 그에게 의지하면(בבטח)”

이 본문들은 신명기 6장의 변형들이며 신명기 12장 12절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아하브’(אהב)를 중심 개념으로 하여 ‘샤마드’(שמר ‘지키다’), ‘샤마’(שמע ‘듣다’), ‘할락’(הלל ‘행하다’), ‘다박’(בבטח ‘의지하다’)와 같은 동사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동사들은 신명기사가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다.

4)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시니라”

이 본문은 2인칭 단수 본문에서 삽입되어 나타나는 2인칭 복수 문장이다. 이 문장은 분명히 신명기 6장 5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학적평으로 살펴보면, 이 문장은 2인칭 단수인 ‘너’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2인칭 복수인 ‘너희’는 2차적인 삽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 매우 오래된 본문이지만, 후대 편집자에 의하여 어느 정도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신명기 19장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본문은 신명기 11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문체론적으로 ‘지키다’와 ‘사랑하다’가 병렬적으로 나란히 놓여 있다.

6) 신명기 30장 6, 16, 20절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6절은 6장 5절과 함께 신명기 안에서 유일하게 동사 ‘사랑하다’로만 쓰여졌다. 즉 야웨에 대한 이상적인 태도를 묘사하는 동사가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점에서 이 문장은 약속(Verheißung)의 본문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 16절과 20절은 야웨에 대한 이상적인 태도를 규정하는 동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토라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하듯 쓰고 있다.

이 본문들은 신명기 구조로 볼 때, 테두리로서 위치해 있는 본문이다. 이미 신명기 5-11장 사이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문장을 살펴보았다. 모두 신명기사가적인 본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본문은 신명기 11장의 본문과 나란히 놓여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명기의 구조를 6-11장과 27-32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은 서로서로 긴밀한 상호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뒤쪽 부분의 본문은 앞쪽 부분의 틀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주제를 파악하고 있다. 앞쪽 본문인 6-11장에서 ‘마음’은 내적 감정 상태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내적인 장치’로 이해하고 있고, 27-32장은 축복과 저주라는 틀을 외부적 제어장치로서 사용하면서 처벌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축복과 저주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인간의 심리적 태도는 외형적 처벌 규정을 통하여 제어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고대 동양에서 유행하던 조약 문서를 통하여 발견된다.

위 본문들을 통해서 신명기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사회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적 전통아래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신명기 6장 5절 이외의 확장 및 단축 본문들은 야웨에 대한 사랑을 법적인 특색으로 간주하고 있고, 법적인 실천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되어진 사랑은 즉각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⁴⁷⁾

5. 나가기

동사 ‘아하브’(אהב)는 어원적으로 북서셈어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 지역 이외에서는 동사 ‘르함’(רחם)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경 안에서 동사 ‘아하브’(אהב)는 다양한 객체를 목적어로 취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은 신명기적 특유의 표현으로 고대 동양에서 조약 문서에 나타나고 있다. 쉬타이만스와 오토의 이해와 달리, 거기서 스피르 비문에 표현된 매우 정교한 문학적 기교는 신명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신명기 6장 5절의 표현과 비교해 볼 때, 동사 ‘르함/아하브’(רחם/אהב)의 사용, 마음(לב/לבב)과 뜻(שכל/שנא)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람어 동사 ‘르함’은 왕의 비문과 조약 문서에서 법적 행위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내면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 본문 안에서 ‘혹 마음에 이르기를’(신 7:17; 8:17; 9:4)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며, 마찬가지로 스피르 비문에서 동일한 단어가 피계약자의 충성심을 반영하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칭수의 변화는 신명기의 것과 비교된다. 2인칭 단수의 집합적 개념이 비록 스피르 비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단수와 복수의 사용은 매우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간 내부의 심리적 태도와 외부적 제어장치로서의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된다.

신명기 6장 5절의 ‘아웨를 사랑하라’는 명령의 배경은 아시리아의 조약 내용이 아닌 북서셈어적 전통 아래에 있는 스피르 조약 문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스피르 비문의 정신은 페니키아와 기타 아람

47) K. Zobel, Prophetie und Deuteronomium, Die Rezeption prophetischer Theologie durch das Deuteronomium, BZAW 199 (Berlin: Walter de Gruyter, 1992), 54.

국가의 국가적 조약 문서 사이에서 흐르는 전통사적인 개념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신명기 저자에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신명기사가는 이 개념을 확장하여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 신명기 이외의 신명기사가적 본문들에서 ‘야웨를 사랑하라’는 개념은 많이 수정되고, 단축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6. 참고문헌

- 윤영준, “쉐마(신 6:4-5)와 에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과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 제29집 (2008년 9월), 31-46.
- 이은우, “쉐마(신 6:4-9)의 수용사(Reception History) 연구,” 「구약논단」 제40집 (2011년 6월), 54-83.
- Aurelius, E., “Die fremden Götter im Deuteronomium”, in: M. Oeming und K. Schmid(Hg.), *Der eine Gott und die Götter. Polytheismus und Monotheismus im antiken Israel*,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3, 145-169.
- Bergman, J., Haldar A. and Wallis, G., Art: אָהַב in: ThWAT I (1973), 106-128.
- R. Borger, *Texte aus dem Umwelt des Alten Testaments I*, (Gütersloh: Gütersloh Verlaghaus, 1982).
- Choi, J.-W.,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Eine literar- und kompositionskritische Studie zu den Vorstellungen von Fluch und Strafe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KAANT 11; Kamen: hartmut spinner, 2011).
- Dahmen, Ch., Art: אָהַב in: ThWAT VII, 461-477.
- Donner, H. and Röllig, W.,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II*, (Wiesbaden, 1966-1969).

- Fernando, G. Charles A., *הת נ של דנא ואל נוֹתב פהסנתאלר הת*, *הת נ של דנא ואל ש סתפננצ הת נ הצראסר צשתננצ דלאחר ו נהפ*, *דנא ליפסנ התרש*, 23, European University Studies, Series 23: Theologie, Frankfurt a. M., u.a.: Peter Lang GmbH, 2004.
- Fitzmyer, J. A., *הת, רשש ש סנתפרצסנ צאמארו הת*, *Biblica et orientalia 19/A* (Rome, 21995).
- Frankena, R.,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Dating of Deuteornomy," *OTS 14*, (1965), 122-154.
- Hoftijzer, J. and Jongeling, K., Art.: $\text{r} \square \text{m} 1$, in: ders., *Dictionary of the North-West Semitic Inscriptions*, HdO I, 21 (Leiden, u.a.: E.J.Brill, 1995), 1068-1069.
- Jenni, E., Art: *אהב THAT I* (1984), 60-73.
- Lohfink, N., *Das Hauptgebot. Eine Untersuchung literarischer Einleitungsfragen zu Dtn 5-11*, AnBib 20 (Rome, 1963).
- McBride, S. D., "The Yoke of the Kingdom. An Exposition of Deuteronomy 6:4-5", *Interp.* 27, (1973), 273-306.
- Macdonald, N., *Deuteronomy and the Meaning of 'Monotheism'*, FAT 2, Reihe, (Tübingen: Mohr Siebeck, 2003).
- Moenikes, A., Art: 'Liebe/Liebesgebot', in: www.wibilexi.de (2012), 1-20.
- Moenikes, A., "The Rejection of Cult and Politics by Hosea", *Henoch* 19 (1997), 3-15.
- Moran, W. L., "The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of the love of God in deuteronomy", *CBQ* 25 (1963), 77-87.
- Nielsen, E., *Deuteronomium*, HAT I/6 (Tübingen: Mohr, 1995).
- Otto, E., *Gottes Recht als Menschenrecht. Rechts-und literaturhistoris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Wiesbaden: Harrassowitz, 2002).

- Otto, E. und Achenbach R.(Hg.), *Das Deuteronomium zwischen Pentateuch und Deuteronomistischem Geschichtswer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 Renz, J. and Röllig, W., *Handbuch der althebräischen Epigraphik Band 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 Rüterswörden, U., “Die Liebe zu Gott im Deuteronomium”, in: M. Witte u.a.(Hg.),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ZAW 365; Berlin, 2006), 229-238.
- _____,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 _____, “Dtn 13 in der neueren Deuteronomiumforschung”, in: A. Lemaire (Hg.), *Congress Volume Basel 2001*, (VT.S 92; Leiden/Boston, 2002), 185-203.
- Seebass, H., “Gott der einzige. Bemerkungen zur Religionsgeschichte un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n: F. Sedlmeier(Hg.), *Gottes Wege suchend.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r Bibel und ihrer botschaft* (Würzburg: Echter Verlag GmbH, 2003), 31-46.
- Steymans, H. U., “Die neuassyrische Vertragrhetorik der Vassal Treaties of Esarhaddon und das Deuteronomium”, in: G. Braulik(Hg.), *Das Deuteronomium*, ÖBS 23; Frankfurt a. M. u.a., 2003, 89-152.
- Suzuki, Y., “Deut. 6:4-5. Perspectives as a Statement of Nationalism and of Identity of Confession”, *AJBI* 9 (1983), 65-87.
- Veijola, T., *Das 5. Buch Mose (Deuteronomium). Kap. 1,1-16,1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_____, Moses Erben. Studien zum Dekalog, zum Deuteronomismus und zum Schriftgelehrtentum, (Beiträge zur Wissenschaft vom Alten und Neuen Testament 149; Stuttgart/Berlin/Köln, 2000).

Wiseman, D. J.,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1958).

Zobel, K., *Prophetie und Deuteronomium. Die Rezeption prophetischer Theologie durch das Deuteronomium* (BZAW 199, Berlin: Walter de Gruyter, 1992).

검색어

사랑과 계약

스피르 비문

킬라무바 비문

신명기 6장 4-5절

A New Study on the 'Love and Treaty' in Deuteronomy

Jong-Won Choi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onn University, Dr. theol.

The present research is to argue that the covenant concept of love in

www.kci.go.kr

Deuteronomy is preserved in the northwestern semitic treaty tradition and the idea is developed as a distinctive concept of Deuteronomy with a traditional treaty-motive. Therefore, this article is to study how the concept of 'Love and covenant' is used in the forms and vocabularies of the ancient treaties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and the ancient Near East.

Deuteronomy's command to love JHWH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tradition of Love in the book of Hosea. This image is found in Deut. 6:4-5 as the key theme of the whole Deuteronomy. In v. 4, 'Shema', a treaty terminology, serves strongly to indicate the command of obedience. The imperative 'hear' is connected to the perfect tense of the verb 'love'(bha), which is used as a form of 'waw-consecutive'. Here the second person 'You' is used for a collective idea of the Israelite. The command to love indicates the status of those who have to obey('hear'). The use of the word 'love' describes Israel's relationship to JHWH. It is noteworthy that this command to love JHWH is used along with an idiomatic phrase 'Heart, soul and might'. This phrase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organs(the heart) and their psychological role. It demands the full devotion to JHWH. The connection of the verbal use and phrase is found in the ancient Near-Eastern treaty texts. A striking example is found in the inscription of Sefire. Also the command to love and similar phrases appear in the inscription of Kilamuwa.

In this research 'the command to love JHWH' is shown to be closely related to national treaty inscriptions. The form of imperative 'love' and the phrase 'heart, soul and might' were passed down from the northwestern semitic treaty-tradition. We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deuteronomic covenant term is different from the notion of the assyrian

treaty-tradition, and it rather fits with the northwestern semitic treaty-tradition.

Keywords

Love and treaty

Inscriptions S^cfire

Inscription Kilamuwa

Deut 6:4-5

■ 투고일: 2014년 4월 01일

■ 심사일: 2014년 4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06일

www.kci.go.kr